

전 세계 바다 30% 보호구역 지정한다

15년 논의 끝 2030년까지 지정 어획량·항로·광물 채굴 등 제한

유엔이 15년이 넘는 논의 끝에 전세계 바다를 보호할 국제해양조약 제정에 합의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해양 및 해양법 대사 레나 리는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유엔 본부에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된 조약의 골자는 2030년까지 공해(公海)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어획량, 항로, 심해 광물 채굴 등 인간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 조약의 공식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해양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획기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해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부터 대양으로 뻗은 해역을 뜻한다. 통상 각국 해안에서 200해리(약 370km) 밖에

있는 해역이 여기에 속하며 국가 관할권이 없다. 공해는 지구 전체 바다의 64%를 차지하지만 고작 1.2%만이 기후 변화,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공식적 보호를 받고 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고래와 거북 등 멸종위기 동물들도 서식지 보존으로 덩달아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로라 멜러는 "환경보존에 역사적인 날"이라며 "분열된 세계에서 자연과 인간을 보호하는 게 지정학을 압도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공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천연 탄소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비영리단체인 퓨처단의 리즈 캐런은 "획기적 성취"라며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의 충격에서 지구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은 바다 생태를 지키기 위해 공해 보호를 골자로 하는 조약 제정을 추진했으나 회원국 간 견해 차로 협상에 진통을 겪어왔다. 특히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

련해 부국과 빈국의 마찰이 오래 지속됐다. 국제사회에서 이번 조약 제정에 대한 논의는 15년 이상 이어졌으며 공식 협상이 진행된 것만도 4년이었다. 이번 합의에 이른 막판 협상은 1년이 될 걸렸다. 최종 협상은 2주 동안 이어지다가 38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됐다. 리 대사는 합의 내용이 크게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회원국들은 합의된 조약을 공식 채택하기 위해 추후 다시 모여야 하며 조약의 실제 이행까지는 몇 가지 단계가 남아있다. 캐런은 "조약이 발효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우선 각 회원국이 이 조약을 최종 비준해야 하고 그다음엔 과학 기술 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기구가 여러 개 설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 이전 가장 최근의 해양 보호 국제 협약은 1982년 체결된 유엔 해양법 협약이었다. 그러나 이 협약은 광물 채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데다가 기후변화 영향도 반영하지 않아 현 시대에는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열차사고 희생자 기리는 그리스 소년 5일(현지시간) 그리스 중부 테살리아주 라리사시의 열차역에서 최근 발생한 열차사고 희생자 추모행사가 열린 가운데 한 소년이 선로에 꽃을 놓고 있다. 지난날 28일 라리사시 인근에서 같은 선로를 달리던 여객 열차와 화물열차가 정면 충돌해 57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튀르키예 지진 한 달...사망자 5만 1천명 넘어

21세기 최악의 대재앙 기록

지난달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국경 지대를 강타한 강진이 발생한 지난달 6일(현지시간)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사망자가 무려 5만1000명을 넘기면서 21세기 최악의 대재앙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됐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규모 7.8의 첫 번째 지진은 지난달 6일 새벽 4시17분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주변에서, 규모 7.5의 두 번째 지진은 약 9시간 후인 오후 1시24분 가지안테프 북쪽의 카흐라만마라수에서 발생했다. 강진으로 인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 사망자는 4일 기준 튀르키예 4만5089명, 시리아 5914명

등 총 5만1003명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사고 후 한 달을 맞는 현 시점에도 철거가 진행되면서 사상자 집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1세기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 중 5번째에 해당한다. 2010년 아이티 지진(약 22만~31만6000명),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인도양) 지진-쓰나미(약 16만~22만7000명),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약 7만~8만7000명), 2005년 파키스탄 지진(7만~8만6000명)을 21세기 들어 피해가 가장 컸던 지진으로 꼽는다.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 지역은 서쪽으로는 아다나에서 동쪽으로는 디야르바키르까지 약 450km, 북쪽으로는 말라티야에서 남쪽으로는 하타이까지 약 300km였다. /연합뉴스

시진핑 3연임 주석 선출 만장일치 여부 관심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시진핑 집권 3기 정부 주요 인사를 확정하고 국가기구를 개편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전인대는 이번 회기 동안 시진핑 주석에 대한 국가 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을 확정할 예정이고 총리와 부총리, 국가 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도 새롭게 확정한다. 5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 프레스센터에 따르면 전인대는 오는 1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시 주석을 국가 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전인대 대표들이 투표로 국가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결정하는 형식이지만, 당이 모든 기구의 상위에 있는 중국의 정치 체제 특성상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심은 당선 여부가 아니라 만장일치 여부에 쏠린다. 시 주석은 5년 전 2018년 전인대 대표 2970

명이 참석한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국가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재선출됐다. 앞서 처음 국가 주석에 선출된 2013년 투표에서는 찬성 2952표에 반대 1표, 기권 3표가 나왔다. 집권 1기와 2기에 이어 3기에도 중국 공산당 총서기, 국가 주석, 군사위 주석을 독차지하며 명실공히 '삼위일체'를 통한 절대 권력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국가 주석과 함께 국가 부주석과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선출한다. 국가 부주석에는 한정 전 상무위원이 내정됐고,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리잔수 상무위원이 맡게 될 예정이다. 다음날인 11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리커창 총리의 후임을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된다. 총리에는 중국 공산당 서열 2위 리창 상무위원이 내정된 상태다. 리커창 현 총리는 2018년 투표에서 반대 2표·기권 0표, 2013년 투표에서 반대 3표·기권 6표를 얻었다. /연합뉴스



불타는 방글라데시 로힝야족 난민 캠프 5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남부 콕스 바자르의 로힝야족 난민 캠프가 화염과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다. 당국은 이번 화재로 가옥 2천 채 이상이 불에 타 1만2천여명이 집을 잃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美 공화 대선 구도 '트럼프 vs 反트럼프' 윤곽

여론조사 트럼프·디샌티스 1·2위

오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 대선 경선 구도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 반(反) 트럼프' 구도가 뚜렷해지는 형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보수진영 단체의 연례행사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여론조사에서 62%의 지지율을 기

록, 잠재적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20%)를 크게 제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같은 행사 조사에서도 59%의 지지율을 얻어, 디샌티스 주지사(28%)를 앞섰다. CPAC이 미국 보수 진영 최대 행사로서 대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과거에 비해 빛이 많이 바랐고, '친 트럼프' 성향이 한층 짙어졌다는 비판적 평가가 나오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초반 기세를 올릴 수 있는 고무적 결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각종 조사에서도 공화

당 주자들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의회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해 온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최종 결심이 임박했다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지난달 말 중순 대선 도전 출사표를 던지고, 75세 이상 정치인들은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면 올해 80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76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견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지만 그의 지지도가 절대적이지 않은데다 중간선거 이후 내부 책임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경선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